



[해설]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과제  
03



코스피 2401.82 (-9.59)	코스닥 841.03 (-18.18)
금리 (우대세 3%) 2.30 (-0.01)	환율 (원/달러) 1069.10 (-7.00) (7일)

부실중소·부실채권·정크본드·경매물건 어디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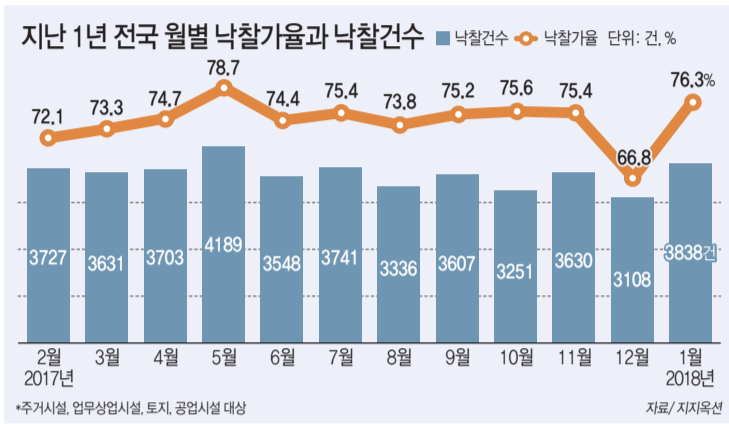
# ‘남의 눈물’ 뒤에 대박이... ‘하이에나 투자’ 급증

최근 최대주주 변경 공시  
2번 이상이 31곳 달해

저렴한 비용에 경영권 획득  
까다로운 상장절차도 줄어

#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J CGV.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2대주주가 됐다. 3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선택이다. CJ그룹이 CJ CGV의 자금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성장 정체를 맞고 있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 제2부두에 있는 토지(7만 9895㎡)와 건물(476㎡)이 270억원에 팔렸다. 이 부동산 소유주는 한때 우리나라 대표 무역상사였던 ㈜STX의 자회사 STX마린서비스였다. STX그룹이 몰락하면서 농협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한 것이다. 이 부동산은 3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의 53.0% 수준에 낙찰됐다.



눈물 속에 팔려 나온 회사 지분이나 부실채권(NPL),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경매 물건을 찾아 할값에 사들이는 ‘하이에나 투자’가 늘고 있다.

이들이 씌은 고기를 마다치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나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빛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을 한꺼번에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의 논리에 ‘도박(gam-

ble)’을 하겠다는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이나 대물로나온 매물, 공매로 나온 급매물 부동산은 머지않아 시장이 살아나면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다.

◆ 부실기업·채권 먹잇감  
부실 코스닥 기업도 먹잇감이 되고 있다. 파는 쪽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사는 쪽에서는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시장 확대를 노린 같은 업종 기업이라면 기존 브랜드를 이용해 손쉽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캠은 뉴원글로벌조합으로 주인이 바뀐다. 1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것. 보유 지분율은 40.09%다. 리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과 사업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넥스지는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사들였다. 이 회사는 사파이어 기반 제조업체로 지난해 3분기 누적 5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텍스네트컴은 골든브릿지증권을 420억원(지분 41.84%)에 사들였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노사소송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부실기업들은 주인도 자주 바

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번 이상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한 기업은 31개사나 된다. 아이엠텍은 무려 5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에치디프로와 넥스지 등은 4번 바뀌었다. 최대주주가 3차례 이상 변경된 상장사 14곳 가운데 12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투자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공급처인 은행으로부터 매년 5조~6조원 규모의 신규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최근 전문 NPL 투자업체를 비롯해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 중소투자자가 가세하면서 양자구도에서 다자구도로 재편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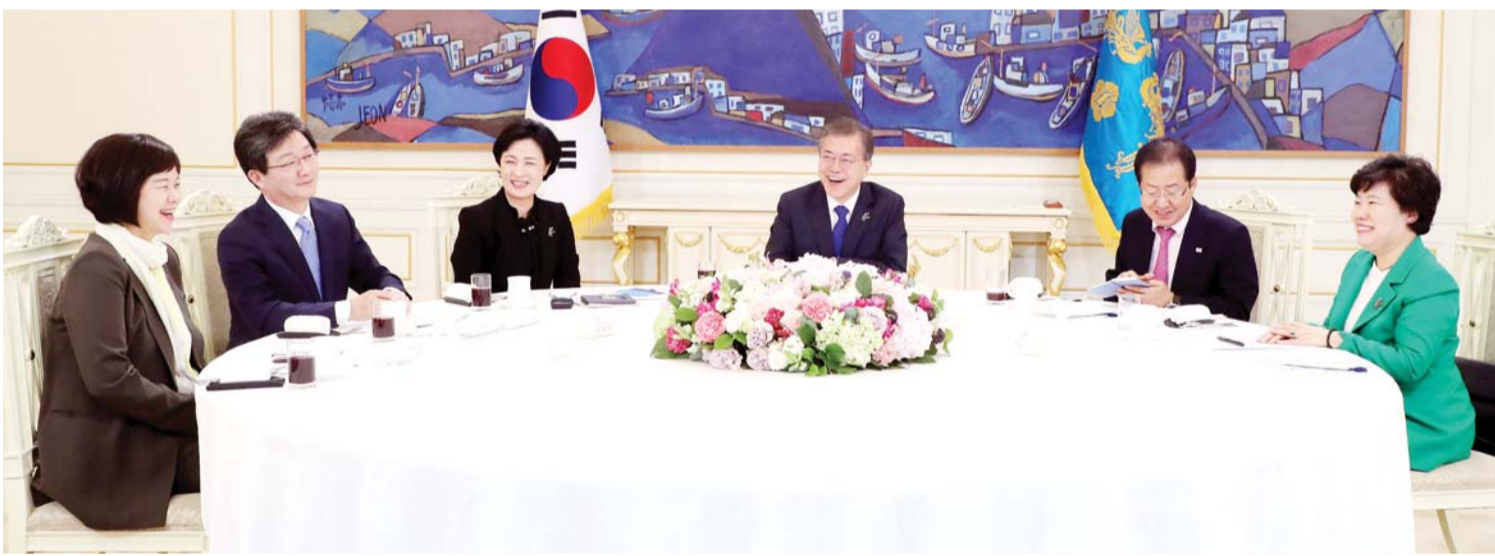
사모펀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엔진은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에 팔린다. 2015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벌여온 두산그룹은 일찌감치 비주력 계열사 정리 목적으로 두산엔진 매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두산엔진의 전방산

업인조선·해운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마땅한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해 매각 추진을 보류한 상태였다. 락앤락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 퀴티파트너스에 팔렸다. 2013년께부터 매출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중국 매출이 ‘한한령’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부실 채권도 좋은 먹잇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은행권 총 부실채권 규모는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최대 NPL 전문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채권 누적 회수율은 88.0%에 달한다. 다만 자산이 생각만큼 잘 팔리지는 않는다. 회수율은 2016년 91.5% 대비 4%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자산에 대한 평가가 깎아지른 채 시장 상황이 생각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란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리가 오르면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 정부·업계, 특화보험 활성화 시동 ‘반려동물보험’ 커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업계가 반려동물보험 등 특화보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복잡한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장내용만을 담은 ‘미니보험’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추진 간담회에서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종 생활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보 등 3곳이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만 457만 가구(2015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지만 관련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는 많지 않다. 국내보험 가입률도 0.16%로 주요국(미국 10% 등)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현재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규모 역시 이미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0년 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 ‘(우)9900ONE 치아보험’·‘(우)9900ONE 암보험’.

보험업계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펫보험은 일본처럼 10년 전 개발됐지만 수입보험료는 일본이 수 백 배 이상 많은데 이는 우리가 정확한 인프라 조사도 없이 시작한 탓”이라며 “반려동물보험을 위한 참조순보험요율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험요율을 개발해 가입플랜을 다양화,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특약은 없애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을 담은 맞춤형 저가 보험은 최근 업계가 주목하는 상품군이다. 일명 ‘미니보험’이라고 불리는데 낮은 보험료가 특징으로 당장 수익성을 높이기보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더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 文 “南北대화 시작했다고 北에 선물 주진 않을 것”

文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시작했다고 북한에 선물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핵과 관련해서 최종 목표는 ‘핵 폐기’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을 겸한 회동 자리에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

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며 “특별히 정상회담과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대해 진행되는 제재와 압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인데 이 중 독자 제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풀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 절대로 이런 합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핵폐기로 가야지, 잠정적 중단으로 가면 큰 비극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가느냐,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아야 할 지혜이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문턱을 넘지 않아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홍 대표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자 “당연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오는 과

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면서 “외신보도라든지 트위터를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가 싶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의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에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봉준 기자 bj35sea@